

“‘영광굴비’지리적 표시제 등록 필요”

회유성 어류 특성 상 생산지 특정 어려워 이개호 “국민신뢰 제고, 소비확대 나서야”

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(담양·함평·영광·장성)은 6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“국내 생산 굴비 중 80%가 영광 산으로 ‘영광굴비’라는 단어가 고

유화 됐을 정도”라며 영광굴비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. ‘지리적표시제’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칭·품질이 특정지역의 지

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, 그 지역에서 생산·가공되었음을 표시하는 제도이다.

등록기준은 유명성과 지리적 특성, 지역 연계성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현재 수산분야 지리적표시제는 ‘보성 벌교꼬막’, ‘완도전복’, ‘남원미꾸라지’, ‘평창송어’ 등 26개가 등록됐다.

영광 역시 굴비생산자협회에서 국내

산 참조기를 가공한 ‘영광굴비’에 대해 2010년 말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했지만 ‘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’에서 농수산물가공품의 경우 “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만 주원료여야 한다”는 규정 때문에 반려된 바 있다.

이는 ‘영광굴비’가 영광에서만 잡히는 참조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지리적표



시제 등록이 안 된다
는 것으로 해석된다.
이에 대해 이개호 의
원은 “고정된 장소에
서 원산물을 재배·사
육하는 농축임산물과
달리 어류를 이용한
가공품의 경우 그 생산지를 특정하는 게
쉽지 않다”고 지적했다.

특히 굴비의 원재료인 조기의 경우 회
유성 어류로서 계절에 따라 동중국해와
우리나라 전남해안을 이동하는 특성이
있다는 것.
이 때문에 타지에서 잡은 참조기더라

도 ‘영광만’의 방식’으로 ‘영광굴비’를
가공해내는 만큼 온 국민이 다 아는 ‘유
명성’과 영광산이라면 최고품질로 쳐
주는 ‘지리적 특성’을 가진 영광굴비의
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하다는 입장
이다.

이 의원은 “지리적표시제 등록요건 중
하나인 ‘지역 연계성’의 경우 가공분야
의 연계성만으로도 지리적표시제 등록
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
하다”며 “이를 통해 지역특산 가공품의
국민신뢰를 제고해 소비확대와 지역특
화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”고 밝
혔다. /김진수기자

與, ‘고발사주’ 녹취록 맹폭... “尹 수사해야”

국민의힘에 김웅 제명 촉구

더불어민주당은 7일 ‘고발사주’ 의혹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 간의 통화 녹취를 고리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집중포화를 쏟아냈다.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복
구한 두 사람의 통화 녹취에서 김 의원이
‘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’, ‘내가
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 꼭 빠
져야 한다’는 등의 녹취록이 보도되면
서다.

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
책 회의에서 “윤석열 검찰이 덮고 싶은
추악한 비밀이 공개됐다”며 “국민의힘
은 즉시 김 의원을 제명하고 국민 앞에
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박완주 정책위의장은 “우리가 남이
가’ 했던 초연 복직 발언 이후 가장 무서
운 말”이라며 “완벽한 각본 짜준 당사자
는 최근까지 기억 안 난다는 일관된 거
짓 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했다”고 맹비
난했다.

김영배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
에서 “모든 정황의 처음과 끝에 윤 전
총장이 있다”며 “이제 진실의 문턱에
와있다. 현정사상 유례없는 정치 검찰
총장과 검사들의 선거 개입 시도와 검
찰 쿠데타의 민낯을 반드시 밝히겠다”
고 했다.



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/연합뉴스

이상호 의원도 “이제는 윤 전 총장의
개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”
며 “공수처에 윤 전 총장에 대한 엄정한
수사를 촉구한다”고 말했다.

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이
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사주 의혹
을 ‘검찰의 명백한 정치 개입이자 선거

개입 사건’이라고 규정하면서 “국감 기
간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겠다”
고 밝혔다.

이들은 “순준성 검사와 김 의원 개인
이 벌인 일이 아니라 ‘윤석열 대검’이 기
획하고 국민의힘을 배우로 섭외해 국정
농단을 일으키려 한 사건”이라며 “윤석

열, 순준성, 김웅 모두 책임지게 할 것”
이라고 경고했다.

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“국민
의 힘은 당명을 ‘국민기반당’이라고 바
꿔야 한다”고 비꼬면서 “앞으로 예정된
대검·공수처·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
철저히 밝히겠다”고 밝혔다. /연합뉴스

어민들, 文정부 수산정책 평가 ‘부정적’

서삼석 “기본소득 보장 정책 적극 추진해야”

문재인 정부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어
민들 평가는 부정평가가 40.1%였던 반
면 긍정평가는 12.8%에 그친 것으로 나
타났다.

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(영암 무안
신안)이 국정감사에 맞춰 7일 발표한
‘전국 어민 해양수산 정책 여론조사’ 결

과 국정과제 중 ‘해상안전(3.10)’을 제
외하고는 대부분 중간점수 3점 이하의
낮은 평가를 받았다.

특히 ‘해양오염 저감’과 ‘어촌 활력,
주민 삶의 질 제고’, ‘생활기반 강화 및
후계양성’은 부정평가가 32.3%에서 33
.7%까지로 높게 나타났다.



어민들은 정부기관
과 유관기관의 중요
성은 높게 평가했으
나, 기관들의 ‘노력 정
도’에 대해서는 낮게
평가했다.

협동조합과 해양수
산부가 각각 5점 척도 중 4.05와 3.95로
중요하게 생각했지만 ‘노력 정도’에 대
해 협동조합은 3.57, 해양수산부는 2.98
로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
를 받았다. /김진수기자

서삼석 의원은 “문재인 정부의 해양수
산 정책이 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
를 만들어야 하는데, 낮은 평가 결과에
빠야 한다”라며 “어민들이 중요한 정책 아
젠다로 판단하는 ‘기본소득 보장’과 ‘최소
생산비 보장’의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
검토해야 할 때”라고 밝혔다.

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수협 조합원 1
천11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
전국 지역비례할당에 맞춰 조사했으며,
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 3.0%
포인트다. /김진수기자

野 기록적 당원투표율에 희비 갈리나

투표율 50% 넘을듯... ‘2강 1중’ 평가속 4등 싸움도 치열

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2차
예비경선(컷오프)에서 당원투표율이
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
서 표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.

국민의힘은 7일 당원투표와 일반국민
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8일 오전 본선
진출자 4명을 발표할 예정이다. 이는 당
원 투표 30%, 일반시민 여론조사 70%를
합산한 결과다.

2차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당원 선거
인단은 37만9천여명으로 전날 모바일
투표율은 38.77%에 달했다.

이는 모바일 투표가 도입된 이후 역대
최고치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. ‘총행
동중’을 일으켰던 6·11 전당대회 투표율
(모바일 36.16%, 최종 45.3%)을 훨씬 웃
도는 수치이기도 하다.

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“당원 대상 A
RS 투표는 통상적으로 10-15% 안팎 투
표율을 보인다”면서 “모바일 투표 결과
와 합산하면 최종 투표율은 50%를 넘길
것으로 예상된다”고 말했다.

적극 투표 성향을 보이는 당원 투표의
성격을 고려하면 이는 향후 본 경선 흥
행을 좌우하는 가능자 역할을 한다는 점
에서 의미가 있다. 본경선은 당원 투표
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투표율은 50%를 넘길
것으로 예상된다”고 말했다.

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6·11 전대에 참

여한 기존 당원 28만 명 외에 8월 말까지
당비를 내고 2차 컷오프에 새로 참여한
는 10만 명의 표심이다.

이들은 당원 배가운동을 벌인 이준석
체제에서 온라인으로 당원이 된 20-40
대가 많다. 지역적으로도 수도권과 호남
에서 신규 유입이 많아서 투표율이 높으
면 당심과 민심의 괴리도 줄어들 것이라
는 전망이 나온다.

윤석열 후보 측 김병민 대변인은 “더
많은 당원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한
다는 것은 ‘진짜 당심’을 드러나게 해주
는 것인 만큼 긍정적 현상”이라고 말했
다.

홍준표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조경
태 의원은 “여론조사는 민심의 방향에
당심이 따라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유불
리를 예단하기 어렵다”고 말했다.

유승민 캠프 대변인인 민현주 전 의원
은 “잘고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신규
당원 표심에 기대가 크다”고 밝혔다.

윤석열, 홍준표, 유승민 후보가 ‘2강 1
중’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오는
가운데 4등 경쟁에도 관심이 집중된다.

한 캠프 인사는 “강성 표심 결집은 최
재형 황교안 후보, 메시지 화력은 원희
룡 하태경 후보에 무게 중심이 쏠리는
모습이어서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려운
상황”이라고 말했다. /연합뉴스

국민의당, 대선기획단 출범...안철수 출마 수순

국민의당은 7일 대선 전략을 수립하
고 당내 후보 선출 관련 제도를 정비하
기 위한 대선기획단을 출범시켰다.

대선기획단장은 최연숙 사무총장이, 부
단장은 유주상 사무부총장이 각각 맡는다.
홍성필 정책위의장, 안혜진 대변인,
김윤 서울시장위원장, 송영훈 당대표 법
률특별보좌역, 김건 전국청년위원회 부
위원장 등은 위원으로 합류한다.

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 안팎 다양

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청년 3명, 여성 5
명, 외부 전문가 등 총 14인으로 기획단
을 구성했다고 밝혔다.

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이나 대선 실
무 준비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.
국민의당 당원은 대선 1년 전 당 대표
직에서 사퇴해야 대선 후보가 될 수 있
다고 규정하고 있다. 관련 제반 사항을
검토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 셈이다.
/이종행기자

그린알로에

GREEN GOONG PRIME EVER 120

그린궁 프라임에버 120

다시 맞이하는
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
건강한 봄날을 위하여!

소비자상담실 080-234-6588

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
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
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
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
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.

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%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